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가 최근 물관리 현장설명회에 이어 금강저수지 전도게이트 시연을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제공

해남·완도 농어촌公 물관리 철저하게

운영대의원 등 대상 현장설명회 가뭄대처방안·급수계획 등 공유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 변화 대응을 위해 수리시설감시원 및 운영대의원을 대상으로 ‘2026년 물관리 현장 설명회’를 실시했다.

24일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를 통해 저

수지 운영 기준과 비상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유관기관 협력 및 현장 대응 절차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공사는 저수지 저수율, 용수공급 전망, 영농기 급수계획, 가뭄 대처 방안, 감시원 안전교육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정경훈 지사장은 “시설물 사전 점검과 안전수칙 준수, 신속 보고체계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남=이정진 기자